

## 금융통화위원회 의사록

### 2011년도 제29차 회의

1. 일 자 2011년 12월 22일 (금)
2. 장 소 금융통화위원회 회의실
3. 출석위원 김 대 식 위 원 (의장직무대행)  
최 도 성 위 원  
강 명 현 위 원  
이 주 열 위 원 (부총재)  
임 승 태 위 원
4. 결석위원 김 중 수 의 장 (총재)
5. 참 여 자 강 태 혁 감 사 김 재 천 부총재보  
장 병 화 부총재보 이 광 준 부총재보  
장 세 근 부총재보 박 원 식 부총재보  
추 흥 식 외자운용원장 정 희 전 정책기획국장  
민 성 기 금융시장국장 김 종 화 국제국장  
김 윤 철 금융통화위원회실장 이 용 회 공보실장  
성 상 경 의사관리팀장

### 6. 회의경과

#### 가. 의결안건

#### <의안 제63호 — 2012년도 1/4분기 한국은행 총액한도대출의 한도 결정>

(1) 의장직무대행이 「한국은행법」 제28조 및 「한국은행의 금융기관대출규정」 제9조에 의거하여 의안 제63호 — 「2012년도 1/4분기 한국은행 총액한도대출의 한도 결정」을 상정하였음

#### (2) 위원 토의내용

일부 위원은 당행은 그동안 금융시장 여건 개선추세를 보아가며 글로벌 금융위기 대응과정에서 확대하였던 총액대출한도를 전면적으로 축소하여 왔다고 언급한 후, 최근 은행의 중소기업대출 추이를 볼 때 신용공급이 크게 위축되는 모습은 나타나고 있지 않지만, 국내외 경제여건의 불확실성 증대 등에 따라 은행들의 대출태도가 강화되고 일부 업황 부진업종을 중심으로 자금사정이 악화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점, 앞으로도 경기의 완만한 둔화 과정에서 이러한 움직임이 당분간 지속되면서 신용등급별·업종별 기업자금 격차가 커질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2012년 1/4분기 총액한도대출의 한도를 전분기와 동일한 7.5조 원으로 유지하면서 총액한도대출제도의 운영방식 개선 등을 꾸준히 추진하는 것이 좋겠다는 견해를 밝혔으며 다른 위원들도 이에 동의하였음

다른 일부 위원은 총액한도대출 운용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견해를 피력하였음

첫째, 총액한도대출은 1994년 도입 이후 현재까지 약 18년간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중앙은행의 정책수단으로서 나름대로 역할을 수행하여 왔으며 최초에는 8조 8,000억원 규모로 시행되다 많게는 11조 6,000억원까지 확대된 바 있고 현재는 7조 5,000억원 규모로 운용되고 있는데, 정책금융의 성격이 강한 총액한도대출은 중앙은행 본연의 업무나 역할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특정부분에 대한 정책적 지원은 중앙은행의 준 재정활동에 의하는 것보다는 정치적 합의가 전제되는 재정자금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만, 중소기업은 우리 경제 전체 기업수의 99%, 고용의 88%를 차지하고 있고 체감경기를 결정하는 부분이라는 점에서 중소기업을 지속적으로 지원해 왔던 총액한도대출의 의미를 소홀히 평가하기 어렵고, 또 현실적으로 총액한도대출을 유지할 수 밖에 없는 여러가지 이유가 있으며 그런 측면에서 보면 동 제도가 지금까지 제대로 역할을 해왔다고 볼 수도 있으므로, 앞으로 동 제도를 한층 더 효율적인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발전방향을 지속적으로 모색해야 할 것임

둘째, 금융·경제여건의 변화를 반영하기 위해 총액한도대출이 보다 성과위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현재의 지원부문과 방식을 향후에도 계속 유지할 것인지 여부를 냉정하게 평가하는 한편, 은행간 경쟁강화를 유도하여 지원효과를 높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함

셋째, 총액한도대출은 비전통적 수단이기는 하지만 정책의 효율성을 한층 제고한다면 향후 대내외 여건 악화시 금리라는 무거운 칼을 휘두르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경우, 우리 경제의 취약부분을 신속하게 선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유용한 정책수단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시행되어 온 유동성 지원자금을 총액한도대출에 통합하여 개편·운영하는 것도 정책수단의 확충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함

### (3) 심의결과

의결문 작성·가결

#### 의결사항

2012년 1/4분기 한국은행의 금융기관에 대한 총액한도대출의 한도를 7조 5,000억원으로 정한다.